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7호 [루계 제2777호]

주제 112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음력 10월 6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민족사에 특기할 공화국의 11월

공화국의 11월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달이다. 바로 이달에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운명개척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적적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하는 민족사적사변을 안아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후인 2022년 11월 18일 보다 더 위력하고 전지구권 타격무기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은 또 한번 만방에 과시되게 되었다.

이것은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내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안아올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무진막강한 국력, 불가항력적기상이 어떤것인가를, 패권주의가 살판치는 오늘날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란 어떤 나라인가를 세계가 더욱 똑똑히 알게 된 역사적사변이었다.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되어 최상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며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는가. 조선의 절대적립, 초강력은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는가.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쓰라!》 이는 지난해 3월 주체조선의 절대적립, 군사적강세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우주만리로 용용히 솟구쳐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시험발사를 명령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새겨주신 친필갈말이다.

사랑하는 인민을 존엄의 최정정에 떠올리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 가장 빛나는 명예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힘으로 헤치시며 한치 또 한치 승리의 길을 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존엄을 지켜주는것보다 더 큰 애국이 없고 그것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힘든 고생이 없다. 홀려온 세월에 천만민민이 우러러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은 천만아들딸들을

웃자락에 감싸안아 눈비를 다 막아주시면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억척같이 지켜주시고 자신의 천만로고와 피땀으로 엮은 행복의 금방석에 인민을 앉혀주시는 강의하고 고마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다. 생명보다 귀중

한것이 민족자존이다. 조국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설사 문힐 땅이 없으면 서서 죽더라도, 말라죽더라도 지켜야 하는것이 존엄이라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실현에 결연히 나서신 불세출의 영웅 김정은장군!

경애하는 그의 자주의 역센

신념과 탁월한 령도,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의 퇴성이 울리고 국가핵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수 많은 사변들이 연이어 이룩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순간의 답보나 멈춤이 없이 공화국의 절대적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령도하시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을 비롯한 주체조선의 초강력의 실제들을 연이어 마련해주심으로 세계적립 핵강국, 초강국인 공화국의 절대적립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퍼라는 사색과 고려, 강인담대한 결단과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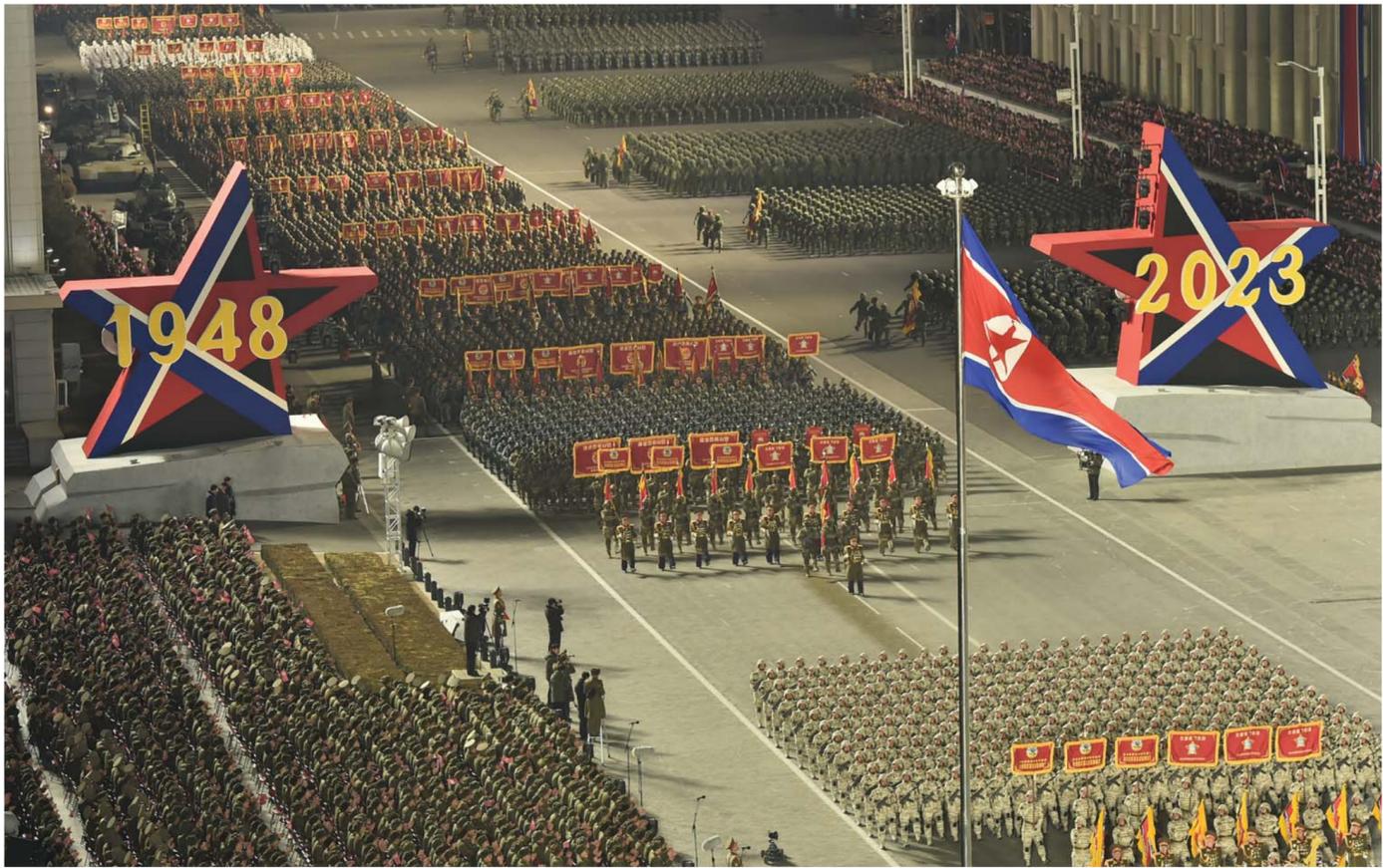
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이 공식법화되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 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가 명백백히 규정됨으로써 공화국 인민은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초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는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계적립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제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려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기 위하여 미사일공업절로 할데 대한 뜻깊은 정령이 채택되었다.

110여년전 11월 국력이 약해 대포와 군함을 끌고온 섬나라오랑캐 무리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40여년간 상가질 개신제만도 못한 식민지노예살이를 해야 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그 누구도 범접 못할 최강의 국력을 떨치고 11월은 국가의 강대한 힘과 존엄을 상징하며 민족사에 더욱 찬연히 빛나게 되었다.

조선의 절대적립이 마련되고 더욱 억척으로 다져진 11월은 말한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강국이 있고 위대한 인민의 존엄과 행복도 있다는것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위대한 공화국의 강대국의 상징이시고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인민의 운명과 미래이시라고.

본사기자 김철진



## 미사일 총국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고체연료발동기시험 진행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가속되고있는 시기에 미사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는 변화되는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전망적인 공화국국방력의 현대화계획을 심의하면서 2023년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계획중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과 함께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새로운 갱신을 미사일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대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들의 기술적특성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1계단과 2계단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들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되었으며 이미 확보한 우리식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분야의 설계 및 제작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한번 뚜렷이 검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무기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적들의 군사적공모결탁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지역의 군사정세에 대비하여 공화국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공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실행중거리탄도미사일개발사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검덕지구의 희한한 전변

검덕지구를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용대한 구상이 가슴벅찬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지에서 또다시 새집들이경사가 닳다.

단천시 돈산동과 금산동에 현대성과 문화성, 다양성이 구현되고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된 1400여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솟아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살림집입사모임들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김영식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단천시지광업총국, 룡양광산의 일꾼들, 로동자들, 돈산동과 금산동의 주민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몇해전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로 검덕지구 피해복구현장을 찾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검덕지구를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광산의 전체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려었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끊

어없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이 제시한 강령적과업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로동계급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광산도시가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없이 넘쳐났다.

새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은 일꾼들이 감격에 겨워있는 집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본사기자



조선국소식

# 복 받은 조선의 어머니들

지난 16일 공화국인민들은 어머니날을 뜻깊고 즐겁게 보내었다. 철부지어린이로부터 중년의 남성,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로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머니들에게 명절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끝없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머니가 제일이에요. 내가 잘되도록 이끌어주세요. 난 어머니의 말만 따르겠어요.》...

자식들의 축하의 인사를 받고 이웃들과 직장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이 나라의 어머니들 누구나 한없는 기쁨과 긍지감에 젖어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었다.

어머니날에 행복의 웃음을 더 활짝 꽃피운 공화국의 어머니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어머니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어머니들처럼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존엄과 행복속에 사는 어머니들은 없다.

녀성들을 국가와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어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워주는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이 나라의 녀성들은 어머니로서의 긍지와 행복과 함께 애국자로, 녀성혁명가로

삶을 빛내이고있는것이다. 그런 녀성들 가운데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온 모성영웅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잘 키우고있는 미풍의 주인공들,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함께 조국의 방진을 지켜가는 안해들, 자기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로력혁신자들, 과학기술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녀교수, 녀박사들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있는 모범적인 녀성들도 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싹을 심어주고 지극한 정성을 고여 나라를 떠메고나갈 거목으로 자재우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가는 이 나라 어머니들을 값높이 내세워주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값높이 헤아려주시었다.

주제101(2012)년 11월 새로 제정된 어머니날을 맞으며 제4차 전

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대회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고결한 중풍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시대적본분을 다해나가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들은 나라와 민족,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자기들이 바친 수고를 평가받았는지 있으며 그들의 공로를 귀중히 여겨주려 했는지였다.

누구에게나 한생토록 사랑하고 추억할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라 부를 때면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고 품어주고 키우준 살뜰하고 인자한 자기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볼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들의 오만자루의 품을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녀성의 본성으로만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이 수고를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공화국의 어머니들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안겨주시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녀성들이 세운 위훈이라면 더없이 크게 여기시며 내세워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커다란 위훈을 세운 영웅이 배출될 때면 영웅의 뒤에 서있는 어머니들의 수고도 잊지 않고 평가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어머니들에게 주실수 있는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금도 사람들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을 바라보면서 녀성들을 위해 기울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새겨안고 한다.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았을때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가 유선중앙연구소를 건설하는것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소가 아니라 우리 녀성들이 유선중앙 유선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며 철저한 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시었다.

완공된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은 그날에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홀에 들어서시여 마치 궁전에 온것같다고 하시

면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건강 한 몸으로 만복을 누리갈 녀성들의 행복년침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녀성들의 건강을 넘어하여 의료기지를 여러 차례나 찾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준 례를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녀성들을 위해 이런 뜨거운 진정을 기울이시는분이시기에 두번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은정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또한 인민군부대들을 찾았시여서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어머니들에게 남다른 긍지를 안겨주시기 위해 천사만사를 걸머지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군인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워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학습장, 《해바라기》 학습용품들과 품고 산뜻한 교복들에도 자식들을 위해 마음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가 어려있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어머니의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

은 나라 어머니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굳세고 대바른 녀성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이 나라의 어머니들, 공화국녀성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한몫을 당당히 하고있다.

나라였던 그 세월 외세의 악정과 봉건의 질곡속에서 열두차례 치마폭에 눈물이 마를 날 없었던 이 나라 녀성들, 울림에 피어나는 봉선화처럼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그것을 피할수 없는 숙명으로서 로마 여겨야 했던 조선녀성들이 오늘날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향유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두꺼비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고있으니 이 나라 녀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녀성

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녀성들이 멀리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은 말그대로 광풍앞의 가냘픈 초봄, 비바람에 떨어지는 락엽,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같은 존재가 되어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다.

오죽하면 《녀성은 항상 불쌍하다.》, 《평등우호는 빛좋은 개살구》, 《녀성일자의 대부분은 지임금》, 《녀성은 결혼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한다.》 등 녀성들이 터치는 울분과 비탄의 목소리가 행성의 토에서 울려나오고있겠는가.

공화국의 녀성들, 어머니들의 행복복한 모습은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지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실 때 녀성들의 참다운 삶, 어머니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꽃들이 만발하듯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어머니들에게는 더 밝고 휘황한 래일이 마중오고있다.

홍명성



## 화성거리의 새집에서 어머니가 된 긍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올해에 복을 쌓으려고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 4월 나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변화기로 훌륭히 일떠선 화성거리의 새집을 받아안았고 그로부터 여섯달후에는 딱딱같은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날 아침 나에게 많은 통보문들이 날아왔습니다.

《새집에서 새 어머니가 된 효정동무를 축하합니다.》, 《화성거리의 육동자로 태어난 복동이 잘 키우세요.》...

그런데 이 차오르는 행복감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행복의 웃음과 눈물이 꿀길줄 몰랐던 온 한해가 돌이켜졌습니다.

가정을 이룬지 한해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화성거리의 황홀한 새집이 차렷했다고 웃음을 지으며 입사증을 안겨주던 동사무장이며 장기출장을 간 사이에 이사를 하다보니 뜻밖에 받아안은 제 집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길에서 헤매던 《행복한 집주인》이 되었던 세대주...

그렇게 꿈같이 받아안은 새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이 찾아들었습니까.

화성구역병원에 첫 산모로 등록되었다고 매일같이 찾아와 나의 건강과 태아의 상태를 걸진하며 정성을 다하던 담당의사선생님

우리 원수님의 해빛같은 사랑속에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에서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만세소리인양싶어 더욱 정다운고 보안 첫살이 보듯 보듯한 아기도 내 살뿐이라는 생각에 앞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소중하게 안아봅니다.

세대주와 나는 아들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물론 이웃들도, 동무들도 두손을 들어 찬성하며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고 칭찬합니다.

《화성》,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받아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 그리고 원수님의 품속에서 그대가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크고 가슴벅찬 행복이 이 이름속에 다 담겨져있습니다.

언제나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인 화성처럼 받아안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보답의 환길만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아들, 내 나라의 역센 기둥이 되라는 우리 부부의 기대, 아들의 이름을 되새기며 한생토록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모시고 따를 우리의 굳은 결심도 아기의 이름에 다 담겨져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성거리의 새집에서 복받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리효정

## 평양산원에서 540번째로 출생한 세쌍둥이 퇴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사랑의 요람, 애기들의 궁전인 평양산원에서 540번째로 출생한 세쌍둥이(아들 1명, 딸 2명)가 만사들의 축복을 받으며 퇴원하였다.

세쌍둥이의 어머니는 황해남도 배천군 읍 280인민반에서 사는 신철옥녀성이며 아버지 리광영은 배천군대홍관리부 로동자로 일하고있다.

세쌍둥이 임신부로 확정된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한 산모는 갖가지 영양음식들과 꿀을 비롯한 최상의 의료상방조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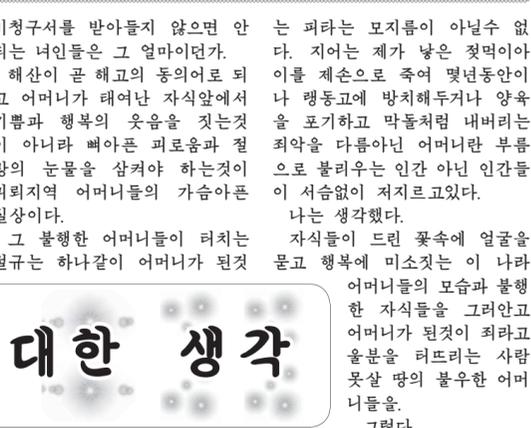
이곳 의료인들은 산모의 수산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고 즉시적인 대책들을 취하여 세쌍둥이를 무사히 출생시켰다.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마련된 요람에서 사랑의 첫걸음을 자랑분으로 하여 자라난 세쌍둥이는 태어날 당시 1.16kg, 1.77kg, 1.89kg이었던 몸무게가 퇴원할때는 4.28kg, 4.4kg, 5.24kg으로 되었다.

세쌍둥이의 부모는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배같은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금반지와 은장도를 비롯한 등이와 그의 부모를 의사, 간호원들이 뜨겁게 배려해주었다.

본사기자



어머니!

아마도 이 세상에는 어머니란 부름처럼 정답고 따뜻하며 아름답고 소중한 부름은 없을것이다.

하기에 제일 귀중한 사랑을 두고 말할 때에도 어머니사랑, 제일 따스한 품을 말할 때에도 어머니품이라 하곤 한다.

그래서 녀성들은 어머니가 되는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11월 16일, 어머니날을 맞으며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를 축하해드렸다.

오빠와 동생들이 저마다 향기로운 꽃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축원하며 어머니와 함께 축배도 들었다.

풍성한 명절음식상과 랑만에 넘친 노래,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방안에 가득 넘치는 꽃향기... 우리 자식들은 가슴에 꽃을 한아름 안은 어머니를 한가운데 모시고 가족사진도 찍었다.

평시에 말이 없었던 어머니도 자식들이 준 꽃들을 송이송이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정말 기쁘구나.》라고 거듭 뇌이는 것이었다.

꽃을 안고 꽃처럼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느라니 어머니의 행

복이란 바로 이런것이로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불행한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더러운 이 세상에서 내가 인간으로, 녀성으로, 어머니로 살려고 한것이 죄이다.》

임신초기에 과중한 로동부담을 받은 후파로 류산한 피폐지역의 한 녀성이 사죄는커녕 오히려 해고시킨 회사측을 고소하

는 피라는 모지름이 아닐수 없다. 지어는 제가 낳은 첫뎨아이를 제손으로 죽여 몇년동안이나 랑동고에 방치해두거나 양육을 포기하고 막돌처럼 내버리는 죄악을 다름아닌 어머니란 부름으로 불러주는 인간 인민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나는 생각했다.

자식들이 드린 꽃속에 얼굴을 묻고 행복에 미소짓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모습과 불행한 자식들을 그려내고 어머니가 된것이 죄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 못살 땅의 불우한 어머니들을.

그렇다.

어머니란 부름이 그대로 무한한 기쁨과 행복으로 되는 곳이 우리 공화국이라면 어머니란 부름 그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바로 썩어빠진 피폐사회이다.

마음속 조용히 어머니란 부름을 정없이 불러보느라니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따뜻한 어머니조국에 대한 정이 가슴에 밀물쳐왔다.

어머니가 된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바로 어머니조국에 안겨사는 행복이 아니라.

김혜정

## 행복에 대한 생각

있지만 그것마저 기각되자 한많은 사회를 저주하며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의 길을 택하였던것이다. 남편에게도, 배속에서 가버린 자식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로 살려고 한것이 죄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세상을 하직하곤 하니.

어머니로 살려고 한것이 죄로 되는 그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된것도 피할수 없는 죄로 된다.

해산으로 임원해있던중 퇴원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 녀성들,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기 전에 먼저 해고통지서, 엄청난 의료

이 죄라는 한탄이고 폭성이다. 어머니가 되려는 초보적인 권리를 어머니로서의 본분과 의무가 죄가 되는 세상, 아니 너자르 태어난것부터가 죄로 되는 저 피폐지역이야말로 어머니들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면 그런 땅에서 어느 녀성이 어머니가 되는것을 원하겠는가. 피폐지역에서는 자식을 낳아서부터 가중되는 무거운 부담으로 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녀성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어머니가 되는 《죄》, 자식을 둔 《죄》를 짓지 않으려

이 죄라는 한탄이고 폭성이다. 어머니가 되려는 초보적인 권리를 어머니로서의 본분과 의무가 죄가 되는 세상, 아니 너자르 태어난것부터가 죄로 되는 저 피폐지역이야말로 어머니들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면 그런 땅에서 어느 녀성이 어머니가 되는것을 원하겠는가. 피폐지역에서는 자식을 낳아서부터 가중되는 무거운 부담으로 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녀성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어머니가 되는 《죄》, 자식을 둔 《죄》를 짓지 않으려

인간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덕과 정이 차넘치는 공화국에서는 생사기로서 헤매이던 사람들이 기적과도 같이 건강을 되찾고 절을 수 없던 사람들이 대지를 활보하는가 하면 알 못보던 사람들이 광명을 되찾는 것과 같은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것을 보며 누구나 속구치는 격정으로 눈굽을 적시었다. 보건일군도 아닌 교원이 어떻게 되어 소리를 치료해줄 결심을 하였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 녀교원은 한 말은 구경값이 없게 웃는 소녀의 노래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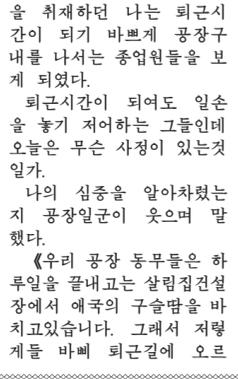


조선의 꽃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꽃다발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그 노동자가 한 말은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약물보다 고마운 사람들의 친혈육의 정이 먼저 나의 몸을 흘러들었습니다. 나의 생명지표는 그들이 바친 사랑과 헌신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들 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나날 나는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고 누구나 친형제라 되어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때때로 느끼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 무수히 꽃피어나는 인간사랑의 전설들은 세상사람들에게 사랑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사회, 남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남의 불행은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는 공화국과 같은 인간사랑의 대화원에서만 참다운 인간의 삶과 행복이 꽃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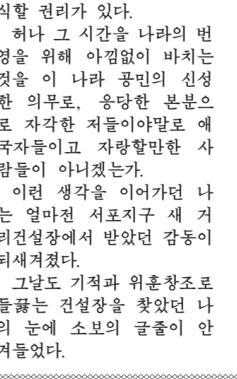
며칠전 우리는 올해를 더 알찬 성과로써 맺었기 마무리할 때 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총분기나선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화성지구 2단계 1단계 대 살림집건설장을 찾았다.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건설장의 어디서나 새 기계, 새 기록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었다.



바쁜 퇴근길

항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하나의 생활세부에서도 시대의 벽한 박동을 느끼게 되는 때가 종종 있곤 한다. 며칠전 취재차로 어느한 공장을 찾아 로력혁신자들을 취재하던 나는 퇴근시간이 되기 바쁘게 공장내를 나서서 종업원들을 보게 되었다. 퇴근시간이 되어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그들인데 오늘은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나의 심증을 알아차렸는지 공장일군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공장 동무들은 하루일을 끝내고는 살림집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들 바빠 퇴근길에 오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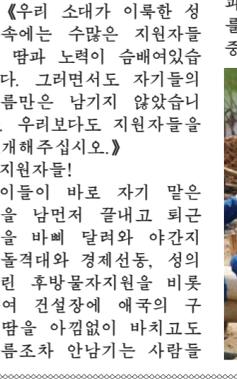
필부럼이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새해의 첫 정사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다. 허나 한해의 시간표가 작성되었다고 꼭 그렇게 되었던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온갖 기만의 미사여구로 새해의 첫시작을 때놓고는 도중에 제버린것에 대한 분노의 함성들이. 이 행성의 자본주의나라들에는 민심을 우롱하고 기



우리가 정한 시간표

만하는 정객들이 수다하다. 이들에 의해 작성되는 시간표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치부와 인기, 자파세력의 리익만을 위한것으로 하여 인민의 지지와 찬사가 아니라 항거와 불만을 자아낸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떠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난 당과 국가가 정한 시간표를 우리가 정한 시간표라고 정당히 말한다. 어째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국가와 우리라는 말을 동격으로 부르는 것인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노라니 눈부

리 아득히 펼쳐진 화성거리가 더욱 황홀하게 안겨준다. 올해도만도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진 화성지역이다.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건설의 착공과 함께 연이어 착공의 피성을 올린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의 웅장한 자태를 맛보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남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될 새 《농장도시》가 일떠서는 강동은실농장건설장의 변모된 모습은



우리가 정한 시간표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높여주게 하는 것인가. 수도의 모습만 변했다.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회화한 농촌살림집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일떠서 이 땅의 농촌마을들은 사회주의선경마을들로 전변되고있고 농촌문명의 개화기를 펼쳐놓았다. 풍요한 전야마다 밀, 보리들의 파아란 싹들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솟아나고 있다. 또 다른 모습들도 보인다. 공화국전략부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

체인 신행대륙간란도미싸인 《화성포-18》형과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이인 전철핵공격잠수함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당과 국가가 설계하고 실행해나가는 사면들이 이 땅에 하나둘 태어날 때마다 우리 인민이 가슴뜨겁게 절감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국력의 높이지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의 높이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우리가 정한 시간표

다. 향유의 권리에야 보답의 의무를 먼저 놓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 사심없는 탐과 노력을 바치는 이런 지원자들을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만이 아닌 온 나라 곳곳의 들들은 건설장과 일터들마다에서 새로운 신심과 희망, 전진불발의 의지를 안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리광훈

든것을 하루빨리 이루어내는 것을 더없는 사명으로 간직하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지의 뜨거운 분출이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위대한 리상과 빛나는 실천이 이 땅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시간을 재는 절대 기준은 바로 인민이며 시간을 이끄는 힘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리상이다. 공화국의 시간표는 바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아버지의 심장에서 뿜어내는 기적의 시간표이며 위대한 리정으로 앞당겨지는 행복의 시간표이다.



우리가 정한 시간표

하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국가와 우리라는 부름을 다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귀전에 울려온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는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결속력을 우타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실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시던 절세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다. 이는 인민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하루빨리 이루어내는 것을 더없는 사명으로 간직하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지의 뜨거운 분출이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위대한 리상과 빛나는 실천이 이 땅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시간을 재는 절대 기준은 바로 인민이며 시간을 이끄는 힘은 인민을 위한 위대한 리상이다. 공화국의 시간표는 바로 인민을 위한 위대한 아버지의 심장에서 뿜어내는 기적의 시간표이며 위대한 리정으로 앞당겨지는 행복의 시간표이다.

독특한 맛과 향기, 뛰어난 약효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꿀.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감미로운 꿀을 선사해준뿐 아니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안겨주는 유익한 곤충인 꿀벌을 쳐왔다. 인간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꿀벌마리수를 더 많이 늘이기 위해 공화국에서는 꿀벌치기를 장려하고 있다. 어릴 가나 더 많은 꿀을 생산하여 나라의 양봉업 발전에 이바지할 마음을 안고 꿀벌을 치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꿀벌은 인체의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필수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구경을 갔던 두 로인이 만물상에 오르다가 100년 묵은 산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잠에 들었다 깨어났는데 절로 힘이 솟고 젊어진 100년을 더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듯이 꿀이야말로 산삼, 료용에 못지 않은 으뜸가는 천연장수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의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필수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구경을 갔던 두 로인이 만물상에 오르다가 100년 묵은 산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잠에 들었다 깨어났는데 절로 힘이 솟고 젊어진 100년을 더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듯이 꿀이야말로 산삼, 료용에 못지 않은 으뜸가는 천연장수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의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필수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구경을 갔던 두 로인이 만물상에 오르다가 100년 묵은 산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잠에 들었다 깨어났는데 절로 힘이 솟고 젊어진 100년을 더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듯이 꿀이야말로 산삼, 료용에 못지 않은 으뜸가는 천연장수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의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필수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구경을 갔던 두 로인이 만물상에 오르다가 100년 묵은 산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잠에 들었다 깨어났는데 절로 힘이 솟고 젊어진 100년을 더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듯이 꿀이야말로 산삼, 료용에 못지 않은 으뜸가는 천연장수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의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필수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구경을 갔던 두 로인이 만물상에 오르다가 100년 묵은 산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잠에 들었다 깨어났는데 절로 힘이 솟고 젊어진 100년을 더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듯이 꿀이야말로 산삼, 료용에 못지 않은 으뜸가는 천연장수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체의 물질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필수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구경을 갔던 두 로인이 만물상에 오르다가 100년 묵은 산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하여 잠에 들었다 깨어났는데 절로 힘이 솟고 젊어진 100년을 더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듯이 꿀이야말로 산삼, 료용에 못지 않은 으뜸가는 천연장수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봉애호가 리선로인

###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 새로래어난

# 《조선정치지도》

주제 38(1949)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일군이 울리는 우리 나라 말로 표기된 《조선정치지도》 초안을 받아 보아보셨던가.

《이 지도를 누가 그렸습니까?》 《인민군신문사 화가동무가 그렸습니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못내 대견하신듯 인민군신문사 화가동무가 재간이 있다고 치하하셨다.

지도를 괜잡게 그렸습니니다. 색까지 넣고 그려 보기가 더 좋습니니다. 도와 시, 군을 비롯한 지명들과 산과 강, 평야, 호수, 명승지들의 이름도 고유한 우리 말로 정확히 표기하였습니니다. 이렇게 지도의 표기를 우리 말로 하니 얼마나 좋습니니다.

그러시고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동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 지도의 색깔을 자기 나라 지도의 색깔과 같이 만들어놓고 표기도 모두 저들의 말로 고쳐놓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우리 나라 지도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자기 말로 번역하여 출판하다니 지금 나들이하는 조선지도를 보고서는 뭐가 된지 알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자신께서 우리 나라 말로 된 조선정치지도를 빨리 만들자고 한것이라고 교시하셨다.

우리 말로 된 지도를 보시면서 그러도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을 우리로써 일군은 감격을 금치 못하십니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었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자면 정확하게 그린 우리 나라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 땅이 어떻게 생기고 거기에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똑똑히 알수 없으며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울수 없습니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상에 펼쳐진 지도를 다시금 보시면서 이 지도에 우리 나라의 섬들을 제대로 다 그려넣지 못한 부족점이 있는데 고치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었다.

우선 조선동해 한복판에 있는 독도부터 그려 넣게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독도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섬입니다.

그러시고 그런데 일본것들이 독도를 《도꾸도》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저들의 섬이라고 세상에 공포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본제국주의를 물아내고 조국을 다시 찾은것만큼 독도도 우리 나라의 섬으로 그려넣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나라 남해에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1400여개의 크고작은 섬들이 있다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섬들은 지도에 반드시 그려넣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셨다.

이렇듯 애국주의를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정치지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철

### 총련 소식

## 애국애족의 길에서 100 살을 맞이한 장수자들

얼마전 100살을 맞이한 6명의 제일동포들을 위한 축하모임이 흑가이도와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오사카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총련일군들이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축하장과 축하금을 김금려, 최일호, 윤영호, 백중현, 강정렬, 라우련동포들에게 전달하였다.

흑가이도에서 살고있는 김금려동포의 100살장수를 총련본부와 지부 일군들이 축하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김금려동포는 14살때에 고향에 부모를 두고 형제들과 함께 오사카부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후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일본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흑가이도에 생활의 터전을 잡은 다음부터 여성동맹 지부 비전임부위원장, 위원장사업을 하면서 군

30년동안 애국애족사업에 모 든것을 다 바치였다. 총련 미야기현본부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인 최일호동포의 집을 방문하여 기념품과 축하금을 전달하고 축하하였다. 살길을 찾아 일본에 건너간 최일호동포는 오사카와 야마가타현 등으로 거처를 옮겨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최일호동포는 《총련에서 이렇게 지성어린 선물까지 마련하여 축하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하였으며 그의 둘째아들은 100살장수를 축하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아버님이 오오래 장수해주시던데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였다.

총련 이바라기현본부에서도 윤영호동포의 100살장수를 축하해주었다.

윤영호동포는 고향인 경상남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간 후 고물상을 하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한편 비전임으로 여성동맹 지부위원장, 분회 분회장 등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동포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의 자식들과 손자들도 총련지부상임위원, 지역청상회 회장 등을 맡아 대를 이어 총련애국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총련 오사카부 본부에서는 강정렬동포를 위한 축하모임을 그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총련 오사카부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분회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강정렬동포는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온 후 파고철을 수집하면서 한푼도 모은 돈을 학교건설과 지부회관, 분회회관건설사업 등에 아낌없이 바치는 등 애국애족운동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강정렬동포는 《조직을 위해 별로 크게 한 일도 없는 나를 이렇게 축하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총련 오사카부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총련과 여성동맹산한 일군들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라우련동포를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고향인 충청북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간 라우련동포는 조국해방후 여성동맹 지부 비전임위원장으로 오래동안 사업하였으며 3명의 아들 한 조선학교에 보내어 어엿

이쁜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향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차를 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닐수 있도록 승용차도 배려해주셨으며 해마다 꼭꼭 입원치료도 받도록 해주시는 은정어린 조처도 취해주셨다.

주제87(1998)년 1월 오향문

한 조선사람으로 키웠다. 아들인 한일부동포는 눈물을 머금고 《총련에서 우리 어머니의 100살을 축하해주니 정말 고맙다. 뜨거운 정을 안고 찾아온 일군들을 만나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관람람부는 이역명에서 오랜 세월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은 이들의 삶은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 동포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어머니의 사랑을 단 한번 만이라도 받는것이 평생소원이었던 오향문이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였으니 그 사랑을 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였다.

주제70(1981)년 6월 어느날 오향문은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꿈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

나라의 천만중대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같은 평범한 배우를 불러주시겠으니 그는 놀리는 심장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예세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내하는 일군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서던 오향문은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게 되였다.

만발 오미란이 한발 먼저 와서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있었던것이었다.

한집안에서 두사람씩이나 이런 영광을 받아안게 된 너무나도 꿈같은 현실에 오향문은 그만 그이께 인사를 올릴 생각이 없고 머리동떨혀서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부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영화를 만드느

라고 불사약이 되어 오향문은 비록 고향의 몸이었으나 청춘의 쾌기와 활력에 넘쳐 일하고 또 일하였다.

일상생활에서는 그처럼 선한 사람, 일본살도 훨씬 지남 로인이던 마이크만 잡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젊은이들도 무색할 정도로 불같은 열정을 폭발시키

어머니를 모르고 자랐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심한 어머니심정으로 나를 품에 안아 세상이 아는 인민배우로 키워주셨다. 이 은정, 이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잊는다면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될것이다. 육체는 병들었지만 장군님 받드는 마음은 조금도 병들지 말아야 한다. 내 한생 장군님 사랑하고 순간의 험도 없이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오향문은 이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참된 삶을 빛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향문을 신미리에국립사탕에 안치하도록 하시고 그의 아들 딸들을 모두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예술인으로 키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불우하게 시작된 오향문의 생이 재능있는 화술배우로서의 값높은 한생이 되였다.

그의 한생은 사람들에게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피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야 희망도 꽃피울수 있고 환희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나를 세상에 태어났지만

###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서

## 공화국의 틀에서 인기있는 화술배우로 (3)

회역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은 당을 받들어 충실히 일해온 영연히 잊을수 없는 나의 동지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다.

장대를 일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향문을 가까이 부르시고 건강상태와 나이를 물어보시다가 올해가 생일 70이 된다는것을 아시고 오향문동무의 70탄생일을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본때 있게 차려주겠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오향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을 또다시 몸가짜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가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정말 보고싶었다고 몇번이고 이야기하시면서 올해 나이가 77살이면 아직 일없다고, 건강하여 한 15년은 더 일해야 한다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후에도 그의 건강이 격정되어서 보약도 보내주시고 관계부본 일군들을 만나시어서는 그가 건강하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다.

위대한 그 사랑이 힘이 되

라고 수고했다고, 건강은 어떤가고 정답게 물어주시었다.

마음속으로 호모하여마지 않던 아버지장군님을 뵈다가 있어서 뵈는것만도 분에 넘친 일인데 이처럼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니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 대답도 변변히 울리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였다.

말을 올리면서 안발 먼저 와서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있었던것이었다.

한집안에서 두사람씩이나 이런 영광을 받아안게 된 너무나도 꿈같은 현실에 오향문은 그만 그이께 인사를 올릴 생각이 없고 머리동떨혀서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부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영화를 만드느

《나를 세상에 태어났지만

##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지난 11일 피리지역의 서울에서는 《윤석열(정권) 퇴진 총력기대회》가 열리였다.

《윤석열퇴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반윤석열투쟁이었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단 하루도 윤석열(정권)과 같은 하늘아래 살수 없다.》고 하면서 무지무능하고 오만과 독선만을 일삼는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처음으로 마이크앞에 나선 한 대회참가자는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오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정권) 퇴진을 선언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수 없듯 민심을 이기는(정권)은 없다.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고 성토했다.

다른 연설자들도 불의한 검찰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 평화, 화해의 꿈을 이루자.》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 방송장악, 집회, 시위단압, 공안탄압으로 민심의 비판의 목소리에 자갈을 물리고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파괴, 언론장악 윤석열(정권) 퇴진하라!》고 웨치였다.

그러간 하면 일본의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를 비호등하는 윤석열역도의 친일사태행위를 까발리면서 더이상 윤석열(정권)이 만들어낸 절망속에 살수 없다고 절규하였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에서도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들이 울려나왔다.

대회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윤석열이 집권하여 1년 6개월간 인민들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질만큼 힘겹고 고달팠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물고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떨어졌고 청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까지 내몰리였다. 그러는 동안에 윤석열(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굴욕외교로 력사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언론을 탄압하고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만 급급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모두가 떨쳐나 다시 《심판의 광장》을 열자!》,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윤석열(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행복에 넘친 어머니들의 모습

— 어머니날을 맞으며 —



##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해간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에서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개선하고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레이자를 쪼여주면 농작물의 활성이 왕성해지면서 종자의 싹트기가 촉진되고 빛합성이 강화되어 알곡수출이 높아지게 된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레이자의 이런 특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육연구원에서도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적인 구조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실천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교육방안편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교육목표분리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조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교육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매체편집물과 특화된 집물제작을 다그치고있으며 연구개발조를 별도로 조직하여 물리, 화학, 생물을 비롯하여 지능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인기를 모으는 기능성치약들

공화국의 맑은아침제약소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맑은아침제약소의 일군, 종업원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자동화와 무균화가 실현된 제품생산공정을 갖추어놓았다.

제약소에서는 자체의 기술, 자재의 원료에 의거하여 인삼치약, 나노은치약, 니코틴 제거치약, 비타민치약, 어린이치약, 미백치약, 퐁치치약, 황경피치약 등 수십가지의 기능성치약들을 개발생산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짧은 시일안에 이발이 회여지고 광택이 나며 이물출혈과 면역강화, 이소기 멈추기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어린이치약은 이삭기예방에 특효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달콤한 딸기향을 배합한것으로 하여 어머니들이 좋아하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하얀 이발을 만들어주는 미백치약은 이발표백에서 효과가 높고 초콜레트나 커피, 차로 인한 얼룩을 제거하는 효능이 뚜렷하다고 한다.

평을 받고 있다.

어린이치약은 이삭기예방에 특효가 있으며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달콤한 딸기향을 배합한것으로 하여 어머니들이 좋아하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하얀 이발을 만들어주는 미백치약은 이발표백에서 효과가 높고 초콜레트나 커피, 차로 인한 얼룩을 제거하는 효능이 뚜렷하다고 한다.

## 민족로리 동치미

동치미는 겨울에 당근은 무우김치의 한가지이다. 무우에는 여러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특히 비타민 C가 많다.

무우가 익으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유기산들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몸안에서의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로 하여 입맛이 없고 피로할 때, 소화가 잘 안될 때 먹으면 좋으며 동맥경화, 변비 등에도 효과가 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우 30kg, 당근 50g, 파 70g, 마늘 100g, 생강 100g, 소금 1.2kg, 배 300g을 준비한다.

소독한 독에 손질한 무우를 한들기 놓고 소금을 뿌린 다음 다시 무우를 한들기 놓는다.

이런 방법으로 독을 채우고 2일동안 절인다.

절인 무우를 한들기 놓고 파, 마늘, 생강, 통고추, 배를 놓는 식으로 독을 채우고 우거지를 덮은 다음 누름돌을 놓는다.

초벌절임할 때 생긴 물과 피어서 식힌 소금물을 채로 맑은 다음 독에 붓고 아귀를 꼭 봉한다.



## 조선 온돌 (4) 글리빈, 그림 채대성

결에 얹은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옹은 말이라고 공감함을 표실했다.

이에 고치지 않고 그들은 제 나라 땅이 아닌 이역에서 몸이 상차까지 갔으니 얼마나 고향의 혈육들이 더 그림졌는가, 하지만 너무 애를 쓸것은 없다, 이제 곧 완쾌되어 고향으로 가게 될것이라고 따뜻이 위로하였다.

유로인이 혼연하게 뒤를 이었다.

《아무렴, 인차 고향에 가게 되구말라. 하루빨리 가야지. 사람이 천리만리를 가도 오로지 마음은 제 고향땅에 두고있어야 하는걸세.》 말을 마치고도 환자의 심정을 헤아려보는듯 한동안 목상에 잠겨있던 로인은 이윽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듯 얼굴이 밝아지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자 자네가 덕이니 복이니 하고 옹게 말했는데 그건 다 우리에게 현명한 조상님들께서 손수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준 덕이고 복일세. 수천년전에 우리 발달시켜서 시조이신 단군성왕님께서 충신들의 도움을 받아 구들을 비롯하여 만민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될 여러가지 풍속을 세상에 내놓으시

구. 하, 이거 뭐 좋은게 너무 많아 미처 다 꼽아내 수가 없구만. ...》 그가 숨을 돌리는 사이 결의 사내가 서둘러 가로웠다.

《자네 거 말하기 솜씨하네네 좀 쉬라구. 내가 도와줄테니까. 아궁에서 밥을 짓는 불길에 구들을 덥히니 그건 공짜라 큰 리득이요. 공짜리득이 또 없으니 밭짓구 남은 불을.》 그는 약탕관이 꿩고있는 오지화로를 가리키며 보이며 《저렇게 화로에 달아 구들에 척 들여놓은즉 방안이 끝질 더워지지 않아, 화로에 저런 약탕기만 아니라 덕보게 좀 많은가. 여러가지 찬거리를 지지고 콩떡아 먹구, 추운 날 술데우구, 밥, 닭알 삶아먹어 좋아, 불뎀 달구어 찜질하구 굶은 옛 늑이구 서로 언 손을 녹이면서 마주앉아 한담하기 좋구. 난구멍에서 젖은 비신을 말려우고...》 하고 흐르는 물같이 쏟아져나오는 말을 유로인이 막았다.

《가만, 가만, 자네 그렇게 뻔어나간 취술같이 늘어놓다니 잠은머리 파뿌리되겠네. 구들말 장마당에서야 구들말을 해야지. 화로는 또 왜 끌어다붙이나. 그러니까 끌어안수밖에.》

## 웃어른의 도움

어느날 집에서 한마리의 소를 기르고있었다.

어느날 소가 량식을 훔쳐 먹다가 대가리를 쌀독에 틀어박은채 쫓지 못하고있었다.

은 가족이 어쩔바를 몰라 하는데 로인은 곧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느냐? 소대가리를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

집안사람들은 로인이 가르쳐준대로 소대가리를 제격 잘라버렸다.

그런데 소대가리가 그냥 독안에 틀어박힌채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또 로인에게 물어보았다.

로인은 대답하였다.

《독을 까부시면 뭘게 아니냐!》

가족들이 또 독을 까부서 버리니 아니나다를까 소대가리가 순조롭게 나왔다.

이때 로인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내가 먹어 이제 몇해를 더 살지 못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 날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옷차림문화

### 《가을철피복전시회—2023》을 돌아보고

아름다워지고 돋보이고싶은것은 사람들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위치한 유류전시관에서 《우리 시대처럼 눈부시게, 우리 리상처럼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가을철피복전시회—2023》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전시회장을 딱 채우다싶이한 27종에 8만여점의 우아하고 산뜻한 각종각색의 피복제품들은 그 형태와 색깔, 재질 등 개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일마절 이곳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먼저 안겨드것은 가상현실이 도입된 투영막이었다.

투영막에서는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처녀총각들이 엇바꾸어 등장하면서 황홀한 옷맵시를 펼쳐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대성구역 종합양복점 전시대로 걸음을 옮겼다.

은은한 색깔을 바탕으로 독특한 것 장식과 팔소매장식, 주머니장식 등 맵시있는 장식들을 한 세련하고 우아한 양복들이 전시되어있는 이곳에서 한 청년이 마음에 드는 양복을 골라 입고 나서니 보는 사람마다 의젓하고 미끈하다고, 옷이 날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못지 않게 양복제작에서 첫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봉화구역 봉화피복연구소보급실에서 제작한 미색남자양복과 근색출직양복, 근색남자검설의투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은하구역 서성은하피복공장에서는 가벼우면서도 형식



이 새로운 오리털솜옷을 내놓아 전시대를 특색있게 장식하고있었다.

어린 아들과 같이 온 한 부부는 오리털솜옷을 입어보고 《새롭다는것이 알린다. 밝은 미색과 대조되게 v자형식의 까만 자크를 달아 돋보이게 한것도 좋지만 날씨에 따라 편직모자와 솜옷모자를 쓰게 되어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는 평양대흥모피공공공장의 옷제작기술수준도 높았다.

공장에서 만든 은은한 색깔에 만져볼수록 부드러운감을 느끼는 너성밍크털외투, 질이 좋으면서 두께있어 보이는 남자가족잠바는 명품들만 올려놓는다는 종합전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야에 안해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느라 원심을 쓰며 다양한 피복제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남성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자기 단위의 특색을 살리며 전시된 피복제품들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멋있고 훌륭했다.

평천구역에서 왔다는 한 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발목이 시도록 돌아보아도 싶지 않습니다. 옷들이 색깔도 곱고 형태도 얼마나 다양한지 다 마음에 듭니다.》

참으로 인민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고상하고 문명한 옷차림문화의 발전전모를 보여주는 전시회장의 그 어디에서나 나날이 개화하는 새 문화, 새 문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차 넘치고있었다.

본사기자 리철민